

전남도, 울창한 산림 교육자원 활용

2017년까지 150억 들여 시설확충·전문인력 양성 청소년 우울증·스트레스 해소 자연체험장 제공

전남도는 21일 “산림을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 2017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산림교육 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산림 체험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안교육으로 산림을 활용한 자연체험·교육 등 복지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림교육을 통한 국민의 정서 함양과 산림가치 인식 제고’를 목표로 ▲산림교육 시설·공간 확충 ▲산림교육 전문인력 육성·관리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산림교육 기반 강화 ▲사회 산림

교육 지원체계 구축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안도수목원을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유아숲체험원을 22개 시·군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수목원·자연휴양림·우드랜드 등 산림 휴양시설을 활용한 유아 및 청소년 산림체험 교육을 연평균 10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체계적 산림교육을 위해 숲해설가 300명, 유아숲지도사 80명, 숲길

체험지도사 22명 등 총 402명의 산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8t 트럭을 개조해 산림교육 교재·교구를 탑재한 ‘이동형 숲체험 교실’도 운영한다.

산림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 등의 진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홍보관과 직업체험관을 운영해 가드너, 나무의사, 목공예, 임산물 가공, 산채재배 등을 직접 체험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체계에 따라 ‘출생에서 사망까지’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산림의 이용적 측면과 함께 산림 보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청소년의 우울증, 인터넷 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 심각한 사회문제 해소 대안으로 최근 산림교육이 부각되고 있다”며 “숲에서 함께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도록 유아부터 어른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산림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5만급 크루즈 오늘 여수 입항

스타크루즈사 슈퍼스타 제미니호

여수시는 21일 “아시아 최대 크루즈 선사인 스타크루즈사의 5만급 슈퍼스타 제미니호가 22일 오전 7시 여수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사진> 슈퍼스타 제미니호는 중국, 홍콩 등지의 여행객 1300명, 승무원 700명 등 2000명을 싣고 이날 박람회장 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해 오후 5시 출항하게 된다.

중국 상해에서 출발해 여수를 거쳐

제주에 입항, 다시 상해로 가는 일정으로 오는 9월까지 올해 총 8번 여수에 입항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이날 오전 크루즈 부두에서 석유화학고등학교 취타대 공연으로 환영행사를 펼친다.

크루즈가 머무르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람회장 국제여객터미널에 지역 특산품 판매장터를 운영해 지역특산품인 마른미역과 갖가지, 속 등을 판매하기로 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광양 백운제 일대 농어촌 테마공원

광양시는 21일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에 농어촌 청정 자원을 활용한 도·농 복합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오는 2015년까지 국비 5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해 자연 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지역 주민들에게 유원지로 고시된 159만3000㎡ 중 9만



고흥 햇마늘 수확 한창

고흥군 풍양면 고목마을에서 최근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는 고흥산 햇마늘. 5월 중순부터 수확돼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난지형 마늘로, 순하고 부드러운 초기 햇마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올해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한 2만 8500t의 마늘을 생산, 410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고흥산 햇마늘 수확 한창

고흥산 햇마늘 수확 한창

고흥산 햇마늘 수확 한창

목포시립도서관 점경사

국가 공모사업 3개 부문 선정

목포시립도서관이 최근 ‘작은 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사업’ ‘토요 꿈 다락 문화학교 사업’ ‘도서관·문화관 문학 작가 파견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3개 부문에 연이어 선정되는 결경사를 맞았다.

작은 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 사업을 통해 행복도서관재단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내년 3월까지 목포시 작은 도서관인 반딧불·초롱초롱·무지개·연꽃 작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한글지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요 꿈 다락 문화학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예산으로 시립도서관은 5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약자지킴 도서관 - 문화 놀이를 품다’를 주제로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도서관·문화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책 읽는 목포-아름다운 나의 모습’이라는 강좌를 개설해 김양주 한국소설가협회 작가 지도 아레 독서동아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치원 등과 연계한 행복한 책 읽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2015년까지 125억 투입

새로운 명소로 조성

6000㎡에 대해 백운만간공원, 초록지공원, 수상레저공원 내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한 배치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힐링의 섬’ 완도 청산도 인기 좋네

연휴기간 관광객 1만5000여명 찾아

완도 청산도의 인기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지난주 3일 연휴기간 지친 심신을 위로받으려는 도시민 1만 5000여명이 슬로시티 청산도를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들어 최고 인파다.

이에 따라 청산도는 물론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등 숙박업소가 연휴

내내 만원이었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3일간의 연휴로 슬로시티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은 연휴 첫날 6500여명 등 1만5000명이 방문했다.

관광객들이 완도항으로 몰리면서 군청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나와 교통 질서와 주정차 지도·선박 중회 운항·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 주변 특산품 판매장과 음식점 등은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숙박업소는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약이 모두 끝났으며, 완도에서 방을 구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인근 해남과 강진까지 나가 잠을 자야했다.

청산도 인기에 힘입어 완도타워에

도 연휴 첫날 평소의 10배가 넘는 2500여명 등 3일 연휴동안 5000여명, 장보고기념관과 수목원·해신 촬영장 등 완도읍권 관광지에도 2만5000명이 찾았다.

서현중 관광정책과장은 “청산도가 슬로시티로 지정되고 힐링의 섬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며 “앞으로 청산도의 구들장은 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청산도 전에 예약이 모두 끝났으며, 완도에서 방을 구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인근 해남과 강진까지 나가 잠을 자야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전남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교육

전남도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23일 오후 1시 도청 감대중강당에서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 시공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건설시공과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예방교육에는 현장 소장, 감리사 등 건설 관련 종사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 1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에선 이순신대학교 신기술

시공 사례, 실제 현장에서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감독 실무요령 등 현장관리능력 배양과 지도감독 능력을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청렴교육을 통해 도지사의 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방재정과 연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명자심사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안정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함을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능이 움츠러들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 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쏟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물이 흐르며 상대방도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사회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통-9818호(광교)